

조선후기 전북 지역 읍치 경관의 원형과 주요 유형

전종한*

목 차

- | | |
|---------------------------|------------|
| 1. 머리말 | 5. 맺음말 |
| 2. ‘역사도시경관’으로서의 읍치 경관 | 참고문헌 |
| 3. 조선후기 읍치 경관의 일반적 성격 | <Abstract> |
| 4. 전북 지역 읍치 경관의 원형과 주요 유형 | |

국문초록

조선후기 한반도에는 약 330개소의 읍치가 있었고 오늘날의 전북 지역에는 그 중 26개소가 분포하였다. 각 읍치에는 조선왕조 오백여 년 동안 관아 시설과 제향 공간을 비롯해 당대의 인간-자연 관계 및 사회와 문화, 지배적 관념 등을 함축한 다양한 경관과 장소들로 채워지며 읍치 경관으로 수렴하였다. 읍치 경관은 한반도의 전통도시경관이자 오늘의 관점에서 귀중한 역사도시경관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관점보다는 당대 사람들의 시선에 비친 읍치 경관의 주요 요소와 유형을 분류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872년 지방 지도에서 묘사하고 있는 산줄기와 물줄기, 주요 경관 요소의 공간 배치 등을 해석하였다. 이 고지도는 읍치 경관에 대한 그 시대 사람들의 공간 인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진안현 사례는 주요 관아 시설의 건축 양식 및 공간 배치를 비롯해 고을 관아 지구가 전체적으로 어떤 원형을 연출하였는지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아사 중심형, 객사 중심형, 객사-아사 포괄형, 객사-아사 분기형, 기타, 이 5가지 유형이 그것이다. 다만 전북 지역 읍치 경관의 원형을 보다 온전히 추적하기 위해서는 26개 읍치

*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E-mail: geographical@hanmail.net

경관에 대한 세부 연구 및 타지역 읍치 경관과의 비교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전북 지역 읍치 경관의 주요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하였다.

주제어 : 읍치, 전북 지역, 읍치 경관, 전통도시경관, 역사도시경관

1. 머리말

읍치(邑治)란 ‘고을을 다스리는 곳’으로 조선시대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였던 각 고을의 행정 중심지를 가리킨다(그림 1). 19세기 기준 한반도에는 약 330개소의 읍치가 있었고, 그 중 26개소가 오늘날의 전북 지역에 있었다. 지방 고을의 행정 타운이었던 읍치는 서구풍의 도시 경관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근대이행기 이전까지 우리의 전통적 도시 경관을 대변하였다.

조선의 읍치 경관은 국가가 지방에 남긴 대표적인 공적 문화유산이며(이해준, 2015, 76), 역사성과 장소성, 그리고 그곳을 살다간 지역민들의 지혜와 사연들이 축적된 역사적, 지리적, 경관적 실체로서 발굴과 보존 및 복원 가치가 있다(전종한, 2019; 2020a; 2020b).

조선후기 전국의 읍치에는 각종의 관아 시설이 모여 있었던 관아 지구를 중심으로, 그 둘레에 소위 삼단일묘(三壇一廟)라는 제향의 장소들과, 국가 수준의 사회·문화 관념 및 고을 환경에서 전개된 인간-자연 관계, 지역민의 생활과 환경 인식, 로컬 지식 등의 무형 문화가 투영된 다양한 경관과 상징적 장소들이 집중 분포하였다(전종한, 2020b, 485).

그간 조선의 읍치에 대해서는 주로 건축학, 역사학, 지리학 분야에서 연구되었다. 대체로 건축학에서는 관아 공간의 구성 및 구조(예. 예명해, 이재환, 2002; 한재수, 2011), 역사학에서는 조선의 읍치가 갖는 도시사회사적 측면이나 읍사례(예. 이규대, 2003; 변광석, 2014), 지리학에서는 읍치 경관의 상징성 및 경관 변화(예. 김덕현, 이한방, 최원석, 2004; 조정규, 2020; 최진성, 2019)가 주된 관심 주제였다.

그간의 선행 연구를 통해 읍치의 공간 구성, 지역사, 경관 특징 등이 어느 정도 해명되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그 분석 대상에 있어 특이성을 보이는 특정 사례에 국한된 경향이 있었다. 이제는 읍치 경관을 ‘한반도 전통도시 경관’으로 재조명하는 입장에서, 특이 사례 위주의 한정된 접근에서 벗

어나 ‘전북 지역의 읍치’와 같은 지역 스케일(regional scale)의 읍치 경관이 갖는 일반성과 고유성을 구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시각의 하나는, 과거의 읍치 경관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하는 것이다. 발굴과 보존 및 복원 가치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다음 세대에 물려줄 만한 헤리티지로서의 가치’ 탐색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조선후기의 읍치 경관’이 우리 삶의 오랜 노정을 함축한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헤리티지(heritage)로서 그 가치가 재인식되어야 한다는 점과, 읍치 경관의 성급한 발굴 및 복원 작업에 앞서 ‘전북 지역’과 같은 지역학(地域學)의 범주에서 읍치 경관의 유산 가치를 보다 다면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식한다.

본 연구는 ①조선후기 읍치 경관에 접근함에 있어 최근의 경관 개념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주요 범주인 역사도시경관(historic urban landscape) 개념으로 이해하고, ②읍치의 입지 환경과 공간 구성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조선후기 읍치 경관의 일반적 성격을 정리하며, ③전북 지역에 분포했던 26개 읍치를 대상으로 읍치 경관의 원형과 주요 유형을 고찰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 연구는 조선후기 전북 지역 읍치 경관의 유산 가치와 지역적 특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로서, 연구 성과는 향후 전라북도 차원에서 각 지자체의 읍치 경관 실태 파악, 잠재적 유산 가치 평가, 복원 계획에 대한 자문이나 행정 지원 등의 후속 사업을 위한 학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역사도시경관’으로서의 읍치 경관

2000년 유럽연합은 「유럽경관협약」(European Landscape Convention)을 채택하면서, ‘경관(景觀)’이란 지역 주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심층적 요인으로 현재의 우리 삶은 물론이고 후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공공 정책의 대상’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¹⁾

2011년 유네스코(UNESCO)는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f Historic Urban Landscape)에서, ‘도시는 인류의 오랜 삶이 누적된 공간일 뿐 아니라 오늘날 인구의 상당수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러한 도시에는 다양

1) <https://www.coe.int/en/web/landscape>

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경관들이 층층이 퇴적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권고는, ‘그럼에도 오늘날 주요 나라들에서 역사도시경관(urban historic landscape)은 20세기 중반 이후의 급속한 도시화와 무분별한 도시 개발로 훼손되는 상황에 있다.’고 지적하고, 도시 속의 역사적, 문화적 자원들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되, 특히 전체론적인 관점(holistic approach)에 입각해 현대인의 문화 콘텐츠로, 경제적 자원으로, 사회 통합의 원천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동력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하였다(UNESCO, 2019, 5)

이처럼 우리 주변의 잠재적 유산들에 접근하는 시각은 이제 ‘문화유적의 발굴과 보존’이라는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문화와 자연의 이분법을 초월하고 유형과 무형의 관계를 살려내며 보존과 발전을 연계하는’ 전체론적 관점에서 보다 갱신되고 있다. 유럽 연합의 「경관협약」이나 유네스코의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에서 보듯이, 이제는 읍치 경관에 대한 우리의 시야가 단순한 문화유적이 아닌 역사도시경관이라는 현재적이고도 전체론적인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전국 각 지방에는 조선시대 읍치 경관 및 그 흔적들이 흩어져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온전하다고 할 만한 사례는 낙안읍성 1개소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파편적으로 잔존하는 형편이다<표 1>. 옛 읍치 경관을 발굴 및 복원하려는 지자체(예. 대구, 원주, 청주, 제주, 전주)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읍치 관련 사업들은 조선 후기 읍치 경관의 원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나 주요 경관 요소들이 담고 있는 무형 문화의 차원 및 스토리텔링에 대한 검토가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고, 특히 옛 건물을 재건축하는 토목 작업 위주의 사업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표 1. 문화재로 지정된 조선 후기 읍치 경관 현황 (2020년 6월 기준)

문화재 종류		소재지 (조선후기의 읍격 및 문화재 이름)
관아 경관	객사군	강릉(강릉대도호부 임영관 삼문), 경주(경주부 동경관), <u>고창(무장현 객사, 동헌)</u> , 김해(김해도호부 객사 후원지), 나주(나주목 금성관), 문경(문경현 관산지관), 보은(회인현 인산객사), 부여(홍산현 객사 은행나무), 상주(상주목 상산관), 서산(서산군 객사), 성주(성주목 성산관), <u>순창(순창군 객사)</u> , 순천(낙안군 객사), 안동(선성현 객사), 안성(안성군 객사), 영월(영월부 관아), <u>전주(전라감영 풍패지관)</u> , 창녕(창녕현 객사), 창원(진해현 객사유지), 청송(청송도호부 윤봉관, 찬경루), 청주(문의현 문산관), 평택(팽성현 객사)
	아사군 및 기타	강릉(강릉대도호부 관아, 칠사당), 거제(거제현 관아), 경주(경주부 관아), <u>고창(무장현 동헌, 홍성현 동헌)</u> , 고흥(고흥현 남휘루, 존심당, 아문), 공주(충청감영 선화당, 포정사문루), 과천(과천현 온온사), 괴산(연풍현 향청, 풍락헌),

문화재 종류		소재지 (조선후기의 읍격 및 문화재 이름)
		괴산(청안현 안민현), 김제(김제군 동헌, 내아), 나주(나주목 관아, 정수루, 내아), 논산(연산현 아문), 대구(경상감영지, 관공루, 징청각), 대전(진잠현 기성관), 밀양(밀양도호부 관아지), 보령(남포현 관아문), 보은(회인현 동헌), 봉화(봉화현 봉서루), 부산(동래도호부 동헌, 외대문, 군관청, 망미루, 기장현 장관청), 부여(부여현 동헌, 홍산현 객사, 동헌, 임천현 사비루, 석성현 동헌), 상주(상주목 향청), 서귀포(정의현 관아), 수원(수원유수부 방화수류정), 아산(은양군 온주아문), 안산(안산현 관아지), 양주(양주목 관아지), 예산(대흥현 동헌, 아문), 울산(울산도호부 동헌, 내아), 원주(강원감영 포정루, 선화당), 익산(여산도호부 동헌), 인천(부평도호부 관아, 옥은지, 어사대, 인천도호부 관아, 강화유수부 동헌), 전주(전라감영지), 정읍(고부군 관아터, 태인현 동헌), 제주(제주목 관덕정, 관아), 제천(청풍도호부 금남루, 금병헌, 응청각), 진주(경상감영 영남포정사 문루), 창원(진해현 관아), 천안(직산현 관아), 청도(청도군 동헌), 청주(청주목 청녕각), 춘천(춘천유수부 위봉문, 조양루), 충주(충청감영 청녕헌, 제금당), 태안(태안군 목애당), 통진(통진도호부 이청), 포항(홍해현 제남헌), 함양(함양군 학사루), 함천(삼가현 기양루), 홍성(결성현 동헌), 화순(능주목 죽수절제아문)
	읍성 (읍치 성곽)	거제(고현읍성), 경주(읍성), 고창(읍성), 고흥(홍양읍성), 밀양(읍성), 보령(보령성곽, 남포읍성), 부산(동래읍성), 서귀포(정의읍성), 수원(화성, 팔달문, 화서문, 서북공심돈), 순천(낙안읍성), 안산(읍성), 울주(언양읍성), 인천(교동읍성), 전주(풍납문), 진주(진주성, 북장대, 서장대, 축석루), 포항(장기읍성), 하동(읍성), 해미(읍성), 홍성(홍주읍성, 조양문, 결성읍성)
	사직단	고성, 남원, 대구(노변동 경산 사직단), 보은(회인 사직단), 산청(단성 사직단), 진주, 창녕

* 읍치 경관 중 국가 문화재인 국보, 보물, 사적, 중요민속문화재와, 지자체 문화재인 기념물, 유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것을 정리한 것. 단, 국방 관련 유적인 전라좌수영의 여수 진남관, 통영 세병관, 남한산성, 부소산성 등의 산성, 개인이 세운 정자나 누각, 도성의 의정부터와 국가 사직단 등은 읍치 경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외함.

**밑줄 표시는 전라북도내 소재한 읍치 경관을 나타낸 것임.

그러면 현대도시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사도시경관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예부터 내려온 유형 및 무형의 헤리티지는 우리의 과거 모습이고, 우리의 문화이며, 우리의 정체성이다(Bassa and Kiss, 2009, 1). 도시경관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다. 도시경관은 정치, 사회, 문화적 변천을 반영하면서도 그것들과 함께 진화하고 변동해 온 역동적 실체이다. 조선의 읍치 경관은 삶을 바라보는 그 시대의 지배적인 관념과 공간 담론, 동아시아 전통도시 간의 교류의 흔적, 국토 곳곳에서 전개된 환경 인지와 적응 전략 등 한 시대의 우리 삶을 간직하고 있다. 조선의 읍치경관은 우리의 전통도시이자 의미 있는 역사도시경관인 것이다(전종한, 2020b, 487).

3. 조선후기 읍치 경관의 일반적 성격

1) 읍치의 입지 환경

조선의 읍치는 국토의 각 고을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직접 통치와 중앙집권화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건설했던 행정 타운이다. 따라서 읍치 경관의 조성 과정에는 지방을 확실하게 다스리기 위한 임금 및 조정의 의지와 판단이 작용하였다. 읍치 설치와 지방관 파견은 조선왕조 개국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고려왕조의 읍치를 이어받은 사례도 있고 옛 읍치 인근에 새로운 읍치를 조성한 사례도 있었으며 당초 읍치가 없었던 속현에 신설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기존 읍치를 보다 적절한 입지로 다시 옮기는 일, 즉 이설 작업 또한 계속되었다.

아래의 A~H 자료들은 조선의 읍치 설치 과정과 입지 조건, 이설 등의 일면을 알 수 있게 한다. 먼저 읍치의 설치는 신하들이 건의하고 이에 대해 임금의 윤허 및 그 명에 따라 진행되었다(①~②).

- A. 신이 근일에 (임금의) ①명령을 받들어 강진 땅에 가서 읍성(邑城)을 쌓을 만한 곳을 보다가 ... (하략) ... (《세종실록》 9년 (1427) 5월 11일).
- B. ②영의정 김재로가 아뢰기를, “연전에 조정에서 안변부 영풍사에 별도로 읍(邑)을 설치하고 ... (하략) ... (《비변사등록》 영조 25년(1749) 5월 29일).

임금의 명을 따라 읍치 입지를 실제 조사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던 관리는 각 도의 관찰사였다. 관찰사는 지세와 지형을 그린 도형(圖形)을 작성하여 조정에 보고하였고, 이를 토대로 조정에서는 읍치의 입지를 최종 확정하였다.

- C. ③도신(道臣)으로 하여금 그 이해(利害)와 편부(便否)를 상세히 탐지하여 옛 터가 새 자리만 못하다면 종전대로 두고 새 자리가 옛 터만 못하면 논리하여 장문(狀聞)한 뒤에 가을에 가서 다시 옮기라는 취지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비변사등록》 정조 14년(1790) 2월 17일).
- D. ④별도로 도형(圖形)을 작성하여 보고하니 다시 묘당에서 품쳐

하기를 청합니다.” 읍을 이설하는 일은 본래 매우 어렵고 … (하략) … (《비변사등록》 영조 25년(1749) 5월 29일).

각 도의 관찰사는 읍치의 입지를 건의하기 위해 어떤 점들을 고려하였을까? 읍치의 입지를 위해 고려한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지세 및 지형의 이해(利害)와 편부(便否)이고(⑤, ⑥), 둘째는 외침에 대비할 수 있는 방어 여건(⑦, ⑧),²⁾ 셋째는 고을의 모든 영역에 고르게 미칠 수 있는 중앙적 위치였다(⑨~⑪). 물론 이 중 첫째 요소인 지세 및 지형의 이해와 편부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지방 행정과 방어 및 교통 등 다방면에서 그 유효리를 따졌을 것이고, 여기에는 산줄기와 물줄기에 대한 당대의 평가 틀인 풍수사상도 가미되었을 것이다.

E. 장흥, 강진, 해진 세 고을은 바닷가이면서 원수부에 인접해 있어서 ⑤그 지세[其勢]로는 믿음직하다 하겠으나 지형[其形]으로 따져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 (하략) …(《세종실록》 9년(1427) 5월 11일).

F. 영돈녕 정존겸은 ‘읍(邑)을 설치하는 것은 일이 큰 만큼 시작할 때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무산(茂山)처럼 토지가 비옥하고 백성이 모여 있었던 곳에 대해서도 ⑥먼저 변장(邊將)을 두어 그것이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편리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몇 년 간 살핀 뒤에 크게 성과가 있어 반드시 실행할 만한 것을 분명히 확인한 다음에야 읍을 설치하였는데 … (하략) …’ (《일성록》 정조 9년(1785) 7월 14일).

G. ⑦주현의 치소(治所)가 평지에 많이 있으니 무릇 큰 난리를 만나면 달이나 살길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리 형세를 살펴서 산성(山城)을 설치하고 의지할 곳을 만들어 … (중략) … ⑧유성룡이 말한 바 ‘지세가 험준하여 지킬 만한 곳을 골라 읍치(邑治)를 만들고 난리를 당하면 들어가 지키라.’고 한 것에 따라 곳곳마다 이와 같이 한다면 … (하략) …(《숙종실록》 14년(1688) 6월 14일).

2) 조선시대의 대부분 읍치들은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의 대규모 외침에서 외적 방어의 거점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였다. 읍치의 입지에 있어 방어 여건이 중요하게 부상한 것은 일련의 큰 외침을 겪은 이후의 일로 볼 수 있겠다.

- H.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 (중략) ... ⑨읍치가 한쪽 모퉁이에 있는 소치입니다. ... (중략) ... 읍치를 다시 옮기는 일도 역시 쉽지 않아 백성의 한 장 상언으로 선뜻 허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비변사등록》 정조 14년(1790) 2월 17일).
- H. 삼수부는 만산 가운데에 있는데 ⑩읍치(邑治)가 한구석에 치우쳐 있으므로 길이 멀어서 민간의 고통을 살필 수 없습니다 (《정조실록》 11년(1787) 7월 4일).
- I. 영원(寧遠)은 ⑩읍치(邑治)를 도리(道里)가 균일하고 적합한 지역이다 옮기고 ... (하략) ... (《순조실록》 11년(1811) 3월 30일).

이와 같이 읍치의 설치, 곧 입지 및 조성은 기본적으로 조정에서 직접 관장하였다. 요컨대 임금의 명을 받은 각 도의 관찰사는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도형(圖形)을 갖추어 조정에 보고하였다. 현지 조사시 고려한 요소는 지형과 지세의 유불리 및 편리 여부, 외침에 대비하기 위한 인근의 산성(山城) 접근성을 비롯한 방어상의 효율성, 고른 통치행정을 위한 고을 내 중앙적 입지 등이었다.

2) 읍치의 공간 구성 원리

읍치의 공간 구성 원리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다(예. 예명해, 이재환, 2002; 김기덕 2004; 전중환, 2004; 2015). 우선 읍치 공간을 채우던 주요 경관 요소를 살펴보면, 객사, 관아, 창고 등으로 이루어진 관아 시설과, 이곳을 둘러싸고 배치된 삼단일묘(三壇一廟) 곧 제향의 장소들,³⁾ 읍치의 입지 환경이자 풍수적 의미를 부여받은 주변의 산줄기와 물줄기, 그리고 한 읍치와 주변 고을을 이어주는 주요 간선도로와 고개 등의 교통망을 들 수 있다.

관아 시설은 다시 몇 가지 범주로 세분될 수 있다. 하나는 객사와 무기고를 포함하는 객사군(客舍群) 시설, 동헌과 내아, 질청, 장청 등을 포함하는 아사군(衙舍群) 시설, 그리고 수령에게 자문하는 지역엘리트들의 거점인 향청(鄉廳)⁴⁾이 그것이다. 객사는 임금을 상징하는 궐패를 안치한 곳으로 지방관의 근무처인 동

3)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하기 위한 사직단, 고을을 지키는 신을 위한 성황단, 떠도는 혼령을 위로하기 위한 여단, 그리고 문묘가 있던 향교를 일컫는다.

4) 향사청(鄉射廳) 또는 향사당(鄉射堂)으로도 불렸다.

헌과 함께 읍치에서 가장 중요한 두 건물이었다. 객사와 동헌 중 어느 시설이 읍치의 중심이었는지를 따지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다. 두 시설은 서로 다른 차원의 중심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객사가 지방관이나 그 지방으로 출장 온 신하가 임금이 계신 궁궐을 향해 정기적으로 배례(拜禮) 행하는 상징적 중심이었다면, 동헌은 고을의 통치와 행정 업무를 위한 실질적 중심이었던 것이다.

물론 물리적 규모로 본다면 동헌과 내아, 질청 등으로 이루어진 아사군에 속한 시설들이 더 중심적인 곳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객사와 동헌의 건립 시점으로 본다면 ‘조선 전기 공해(公廨)를 짓는 경우 지방 수령은 관아보다 객사를 먼저 건설하는 것을 선호하였다(백소훈, 2017, 88).’는 점에서, 객사가 더 중요한 곳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각 고을에 부임한 지방관은 임금으로부터 지방 통치 권력을 위임받은 자였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객사의 정청(正廳)에 나아가 배례를 올려야 했다는 사실은 객사의 상징적 중심성을 잘 드러낸다. 일반적으로 객사의 평면 구조는 중앙의 정청을 중심으로 양쪽에 동헌⁵⁾과 서헌⁶⁾으로 불리던 익헌(翼軒)이 있었다.⁷⁾ 읍치 조성 초기의 수령은 지방관을 위한 독립 동헌이 아니라 객사에 딸린 동헌에서 집무를 보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향의 장소들은 읍치의 관아 지구를 둘러싸는 형태로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사직단은 1406년(태종 6) 전국의 모든 부주군현에 사직단을 세워 제사를 행하고 하라는 명에 따라 고을마다 건립되었다. 여단은 억울하게 죽은 자나 떠도는 혼령을 위로하기 위한 제단이다. 성황단은 ‘성(城)과 해자(核子)를 수호하는 신을 모시는 제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일찍이 고려시대부터 각 고을의 향리 집단들이 주체가 되어 제의를 올렸던 제단이다. 이들 시설은 그

5) 객사 동헌의 기능은 손님을 위한 연회 공간이자 지방관의 업무처였다. ‘객관(客館)에는 동서에 헌(軒)이 있는데 동헌에는 귀인들이 와서 머물고 관찰사가 재판하기 위하여 송사를 듣는 곳이니 아기(牙旗)와 절월(節鉞)이 세워지고 문안과 간독이 놓여져 백성들이 모이면 반드시 그 구조와 뜰을 장엄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위엄을 느껴 바라보고 두려워하게 한다.’(『광산현』, <전라도>, 《신증동국여지승람》).

6) 객사 서헌의 기능은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나 그 밖의 손님을 위한 숙소였다. ‘밤에 병사가 동헌(東軒)에서 전별의 잔치를 베풀고 크게 기악을 벌였는데, 부사(副使)가 자리하였기 때문에 나는 서헌(西軒)에 누워 있으면서 가지 않았다.’(《연행일기》 제1권); 다만, 동헌에서 상급 관리를 위한 연회가 베풀어질 경우 서헌은 차하급 관리의 연회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를 보면 동헌이 서헌에 비해 격이 높은 이들을 위한 장소로 간주되었던 것 같다. ‘감사 구공(具公)이 오늘 아침에 이미 동헌에서 서헌으로 물러나 양보하니 나는 동헌으로 들어가 경렴을 보내 감사와 병사에게 문안드리게 하였다.’(《미암집》 제14권).

7) 『광주객사동헌기(光州客舍東軒記)』, 《허백당문집》 제3권.

입지에 있어 대체로 특정한 방위를 지향하였다. 관아 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사직단은 서쪽에, 여단은 북쪽에, 향교는 동쪽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특정 방위 지향성은, 실제로는 고을별로 산줄기와 물줄기 배치, 평지 규모, 지형과 지세 등 환경 조건이 다양했기 때문에 엄격히 지켜지진 못했다. 성황단은 특정 방위 지향성을 보이지는 않고 다만 고을의 진산이나 풍수적 주산과 같은 상징성을 가진 산지, 혹은 읍치로 통하는 주요 고개 부근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면 읍치 공간을 채우던 이들 경관 요소들의 공간 배치, 즉 읍치의 공간 구성은 어떠하였을까? 읍치를 묘사한 조선의 고지도들은 읍치의 주요 경관 요소들뿐만 아니라 그 공간 배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읍치 경관 요소의 공간 배치에는 몇 가지 원리가 적용되었다. 주요 원리로는 읍치 내 최고 권위 경관으로서 관아 시설의 중심 지향성, 풍수 사상을 고려한 읍치 입지 및 각종 비보(裨補) 경관 조성, 《주례(周禮)》 〈동관고공기(冬官考工記)〉에 따른 좌묘우사(左廟右社)의 원칙, 여단이나 문묘(향교)의 배치 방위에 영향을 주었던 당대의 주요 관념으로서의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원리 등을 들 수 있다(전중환, 2005,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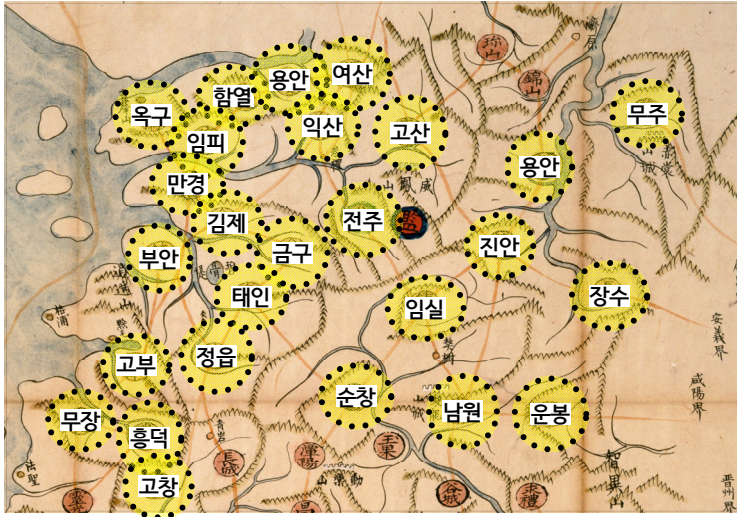
조선시대 한반도 읍치 경관들에는 이상과 같은 일반적 공간 구성 원리들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 원리들에 의거 전국의 읍치들이 획일적인 경관 구성과 공간 배치를 보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위 원리들이 원칙적으로 고려되는 가운데, 실제로는 해당 읍치의 연혁과 전통적 기능, 읍치가 입지한 산줄기와 물줄기의 국지적 환경 조건, 읍치로 수렴되는 주변의 교통로 체계 등을 반영하면서 한반도의 읍치 경관은 전국적 일반성과 지역적 고유성을 동시에 갖추어 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이해일 것이다.

4. 전북 지역 읍치 경관의 원형과 주요 유형

1) 전북 지역 읍치 경관의 원형

현재의 전북 지역에 분포했던 조선후기의 읍치는 26개소였다. 그림 2는 현 전북 지역에 분포했던 조선후기 26개 고을을 《해동지도》에 표시한 것이고, 표 2는 26개 고을의 읍치 소재지를 현재의 행정 구역명으로 나타낸 것이다. 26개 읍치 중 18개(약 69%)가 전주부 서쪽 지역, 즉 서부 평야 지역에 집중

분포하였고, 전주부 동쪽의 산간 지역에는 무주, 용안, 진안, 장수, 순창, 남원, 운봉 등 8개소의 읍치가 분포하였다. 그리고 옛 읍치는 현재 읍 소재지 또는 면 소재지로 존속하고 있다.



* 자료: 《해동지도》, 古大 4709-41, 서울대학교규장각)

그림 2. 전북 지역의 조선후기(18세기) 26개 고을 분포

표 2. 전북 지역의 조선후기 26개 고을의 현재 위치(18세기 후반)

고을(읍격)	현재 위치	고을(읍격)	현재 위치
1. 고부군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14. 용담현	진안군 용담면 옥거리
2. 고산현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15. 용안현	익산시 용안면 교동리
3. 고창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6. 운봉현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서천리
4. 금구현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17. 익산군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 김제군	김제시 교동, 서암동, 요촌동	18. 임실현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6. 남원부	남원시 동충동	19. 임피현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7. 만경현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20. 장수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8. 무장현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21. 전주부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9. 무주부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2. 정읍현	정읍시 수성동
10. 부안현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서외리	23. 진안현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군하리
11.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24. 태인현	정읍시 태인면 태성리
12. 여산부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25. 함열현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13. 옥구현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26. 홍덕현	고창군 홍덕면 홍덕리

* 현 충청남도예 편제된 금산 지역 읍치 2개소(금산, 진산)는 제외함.

표 3. 전북 지역의 조선후기 고을별 호구수(18세기 후반)

고을	호수	인구	고을	호수	인구
1. 고부	6,522	28,631	14. 용담	3,155	12,860
2. 고산	4,115	16,773	15. 용안	1,687	5,625
3. 고창	2,035	8,402	16. 운봉	2,105	7,055
4. 금구	2,544	9,242	17. 익산	4,114	15,822
5. 김제	5,998	27,585	18. 임실	6,408	27,516
6. 남원	11,157	43,411	19. 임피	4,469	22,131
7. 만경	2,672	14,674	20. 장수	4,166	17,539
8. 무장	6,829	27,149	21. 전주	20,947	72,505
9. 무주	5,446	14,032	22. 정읍	2,466	9,674
10. 부안	7,923	38,448	23. 진안	5,765	22,210
11. 순창	6,836	26,849	24. 태인	7,849	31,205
12. 여산	4,063	19,011	25. 함열	4,131	15,943
13. 옥구	4,446	14,649	26. 홍덕	2,804	10,115

* 자료: 《호구총수(戶口總數)》(1789년경)

이제 전북 지역 읍치의 경관 원형을 추정해보기로 한다. 전북 지역 읍치의 원형은 26개 읍치에 공통으로 조성되었던 주요 경관 요소와 전체적 공간 구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여지도서』에 의하면 조선의 읍치 공간을 구성했던 주요 경관 요소들은 관아 시설과 제향처(제사처)로 대분할 수 있다. 부록 1은 전북 지역의 26개 읍치에 조성되었던 경관 요소를 크게 <주요 관아 시설>과 <제향처(제사처)>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전체 26개 읍치 중 홍덕현 1개소를 제외한 25개 읍치에서 공통된 4대 관아 시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객사, 아사, 향사당, 훈련청이 그것이다. 여기서 객사란 본채 외에 부속 시설들을 포함하는 것이고, 아사 역시 동헌뿐만 아니라 내아, 질청 등등의 부속 시설들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이들 4대 관아 시설은 각각 임금을 상징하는 공간, 지방관의 집무 공간, 고을 유지들의 지방관에 게 자문하기 위해 머무는 공간, 무예 및 군사 훈련을 위한 공간이었다.

읍치의 주요 관아 시설이 바라보는 방위, 즉 좌향은 대체로 남향이였다. 물론 좌향은 세부 시설별로 다양했다. 하지만 관아 시설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객사와 동헌만을 따진다면, 거의 대부분 읍치에서 그 좌향이 남향인 것으로 확인된다. 객사의 경우 26개 읍치 중 21개 읍치가 남향(약 81%), 동헌의 경우 26개 읍치 중 22개 읍치가 남향(약 85%)이었다. 기타 객사의 경우 동향 2개소, 남서향 1개소, 서향 1개소, 북향 1개소, 동헌의 경우 동향 3개소, 남서향 1개소가 있었다.

진안현 고지도(1872)는 주요 관아 시설의 구체적 건축 형태와 전체적 공간 배치를 잘 보여준다. 주요 시설들은 일정 높이의 단 위에 건축되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객사와 동헌과 향교, 이 세 시설은 별도의 담장을 쌓아 각각 공간적으로 독립성을 갖도록 배치되었고, 각각의 주출입문은 중층의 누각(樓閣) 형태를 취한 삼문(三門)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삼문으로 진입하기 전에는 먼저 홍살문을 통과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수령이 일하는 동헌의 전면에는 질청과 형청, 장청 등 수령을 보좌하는 관리들을 위한 시설 및 고을 유력자들이 자문을 위해 머무는 향청이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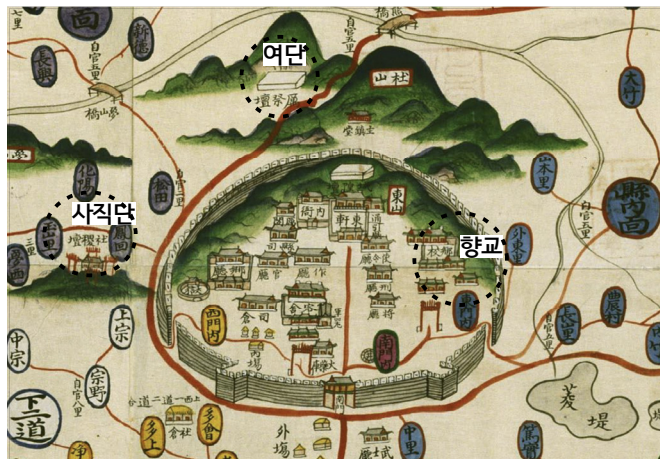
그림 3. 주요 관아 시설의 건축 형태와 공간 배치: 진안현

물론 이러한 건축 형태와 공간 배치가 모든 고을에서 동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진안현 사례는 주요 관아 시설의 건축 양식 및 공간 배치를 비롯해 고을 관아 지구가 전체적으로 어떤 풍경을 연출하였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조선후기 전북 지역 읍치 경관의 원형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추정할 수 있게 한다.

고을에 따라서는 4대 관아 시설에 딸린 부속 시설이 다양하게 분화되기도 하였다. 고부, 김제, 남원, 만경, 여산, 임피, 전주, 정읍의 사례가 그에 해당한다. 이 같은 부속 시설의 분화는 일단 고을별 인구 규모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표 3 참조), 물론 인구 규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경우에는 방어 거점과 같은 요충지로서의 입지 특성이나 감영지와 같은 행정적 중심성이 반영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전주부는 7만 2천명을 상회하는 큰 도회지였고 일반적 관아 시설 외에도 전라도 감영지로서

의 관찰사 집무처와 도사(都事) 근무처, 그리고 조경묘와 경기전 같은 왕실 발상지로서의 상징적 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었다.

한편 모든 읍치에는 관아 시설을 둘러싸는 패턴으로 사직단, 여단, 성황단, 문묘라는 4대 제향처가 배치되었다. 이 중 성황단을 제외한 주요 제향처들은 특정 방위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 제향처들의 특정 방위 지향성은 좌묘우사의 원리와 음양오행 사상 등 당대의 지배적 관념 세계를 반영한 것인데, 동시에 이러한 원칙은 조선 초부터 도읍(都邑)에 적용된 원칙이기도 하였다.



* 주: 읍성이 읍치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고 읍성 안에 객사, 동헌, 향청, 사령청 등 주요 관아 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4대 제향처 중 사직단은 서쪽, 여단은 북쪽, 향교는 동쪽 등 주요 제향처의 특정 방위 지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1782년 지방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그림 4. 주요 제향처의 방위 지향성: 만경현

『숙종실록』에는 ‘국도(國都)에는 방위를 설치하여 각기 해당하는 바가 있으니, 동쪽에는 태묘와 문묘가, 서쪽에는 사직단이, 북쪽에는 여단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벌을 시행하거나 열무(閱武)하는 일 같은 것은 모두(陰)에 속하기 때문에 서쪽이나 북쪽에서 시행하는 것이니 … (하략) …’라는 관련 기록이 보인다.⁸⁾ 도읍에 적용된 원리는 조선시대를 지나면서 전국 각 지방 고을에까지 확산 적용되어, 읍치 관아에서 전면을 바라보는 시선을 기준으로 하여 좌측에는 문묘를, 우측에는 사직단, 북쪽에는 여단을 두었던 것이다.

8) 『숙종실록』 숙종 6년(1680) 경신, 8월 3일 기사.

2) 전북 지역 읍치 경관의 주요 유형

조선 읍치 경관의 유형에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읍치와 관도의 연결 유형(도도로키히로시, 2005), 풍수적 관점에서 본 읍치 경관 유형(최원석, 2007), 권위 상징의 전형으로서의 읍치 경관(이기봉, 2008), 읍치의 입지 유형 분류(정요근, 2011) 등이 있었다. 기존의 대부분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읍치 경관의 유형에 접근함에 있어 객관적, 형태적 관점 대신 인지적, 심상적 관점을 취한다. 이는 오늘의 관점에서 조선의 읍치 경관을 분석하기 보다는 가능한 당대의 시선으로 해석해 보자는 의도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활용 가치가 큰 자료가 조선시대의 고지도류일 것이다. 조선후기 고지도류는 대체로 심상지도, 즉 ‘지표 세계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미지’로 볼 수 있다. 특히 『1872년 지방지도』(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는 각 고을에서 제작하여 올린 회화식(繪畵式) 지도로 읍치 경관을 해당 고을의 시선에서 자세히 묘사한 고지도라 할 수 있다. 조선후기의 다른 고지도류가 관아 시설을 묘사함에 있어 아사, 객사, 창(倉) 정도만 간단히 표현한 것에 비해, 『1872년 지방지도』에 수록된 고을 지도의 대부분은 객사와 동헌 등의 핵심 시설은 물론이고 이에 딸린 다양한 부속시설들, 4대 제향처의 위치와 그 경관, 읍치 주변의 산줄기와 물줄기, 읍치 안팎을 연결하던 교통로, 주요 지명과 시설 명칭 등등 다양한 지리 정보를 비교적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연구자는 『1872년 지방 지도』를 근거로 전북 지역 읍치 경관의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 읍치 경관의 핵심부를 점유하고 있던 관아 시설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에 주목한다. 읍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은 객사였을까 아사였을까? 이 질문은 읍치 안팎의 경관 배치의 기준점이 어느 곳이었는가에 대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 질문에 대해 객사를 그곳으로 보는 연구자도 있고 아사(동헌)가 가장 중요한 건물이라 답하는 연구자도 있다. 하지만 본체의 규모를 근거로 하느냐, 위계성 내지 상징성을 근거로 하느냐, 지리적 위치상의 중심성을 근거로 하느냐, 상징적 관점에서 볼 것이냐, 실질적 관점에서 볼 것이냐 등등 ‘가장 중요한’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대답은 달라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관아 지구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형국 안에 놓여 있느냐 서로 다른 형국으로 나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느냐 하는 점까지 살펴봐야 한다.

읍치의 중심성을 판단하는 일은 읍치 경관의 주요 유형(‘○○중심형’)을 추출함에 있어 유용한 방법이다. 연구자는 읍치의 중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당대의 심상 세계를 반영한 고지도에 주목하고, 여기에 묘사된 주된 배후 산지

의 방향 및 주요 산줄기 맥세를 기준으로 1차 판단하고, 읍치 중심부의 주요 간선 도로 방향을 기준으로 2차 판단하였다.⁹⁾ 이러한 판단에 동원된 주된 자료는 『1872년 지방 지도』(서울대학교 규장각)였고, 고지도에 묘사된 주요 산지나 산줄기 맥세가 모호한 고을의 경우 『광여도』(古경4790-58), 『지승』(奎15423), 『해동지도』(古大 4709-41), 『비변사 방안지도』(이상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를 보조 자료로서 검토하였다.

분석의 예를 들자면, 전라도 고산현 고지도의 경우 관아 배후에 이 고을의 주된 산지가 위치하고 그 산지의 상징성을 드러내듯 그곳에 성황당이 소재한다. 여기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는 두 줄기로 갈라져 읍치를 감싸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갈라지는 지점에 아사의 핵심 시설인 내아와 동헌이 자리한다. 이 때 북쪽으로는 산줄기가 위치하므로 간선도로는 자연스럽게 아사 전면인 남쪽으로 전개된다. 즉 고산현 사례는 읍치 핵심부에 아사가 위치하는 유형, 다시 말해 ‘아사 중심형 읍치 경관’(이하 ‘유형 I’로 칭함.)의 전형이다(그림 5). 이러한 유형 I 에는 고산 읍치 외에 만경, 옥구, 용안, 장수, 진안, 홍덕 등이 있다.



그림 5. 아사 중심형 읍치 경관: 고산현 사례

9) 읍치의 배후에 위치한 주된 산지와 읍치 전면의 간선 도로는 방향 면에서 상관성이 크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가령 배후의 주된 산지가 읍치 북쪽에 위치한다면 읍치 내 간선도로의 방향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객사가 읍치 경관의 핵심부에 들어선 유형, 즉 ‘객사 중심형 읍치 경관’(이하 ‘유형 II’로 칭함.)이 있다. 이 유형의 읍치 경관에서는 주요 산지에서 뻗어 내린 맥세가 끝까지 미치는 말단부에 바로 객사가 위치한다(그림 6). 객사의 배후에는 산줄기가 위치하므로 간선도로는 자연스럽게 객사 전면인 남쪽으로 뻗어 남문과 연결된다. 그리고 객사를 중심으로 동헌과 내아 등의 아사군 경관이 주변에 조성된다. 이 유형 II에는 무장 읍치를 비롯해 여산, 익산, 순창, 여산, 장수 등의 읍치가 해당된다.



그림 6. 객사 중심형 읍치 경관: 무장현 사례

주된 산줄기 맥세가 객사와 아사 중 어느 하나에 집중되기 보다는 양자를 포괄적으로 감싸는 유형, 즉 ‘객사-아사 포괄형 읍치 경관’(이하 ‘유형 III’으로 칭함.)이 있다. 유형 I ~ 유형 III은 읍치에 닿는 주된 맥세가 대체로 한 줄기이기 때문에 객사와 아사의 주된 좌향이 동일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경우 간선도로는 객사와 아사의 전면으로 발달한다. 이 유형에는 고부, 금구, 김제, 무주, 용담, 임피, 정읍, 태인, 함열이 해당한다.



그림 7. 객사-아사 포괄형 읍치 경관: 고부군 사례

객사와 아사에 맞닿는 주된 산줄기가 별개로 존재하는 유형, 곧 ‘객사-아사 분기형 읍치 경관’(이하 ‘유형 IV’로 칭함.)도 있다. 이 유형으로는 임실 읍치가 대표적이다. 객사와 아사에 각각 이어지는 주된 산줄기가 다르다보니 이 유형에 속하는 읍치의 경우 객사와 아사의 좌향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간선 도로 역시 객사와 아사로부터 각기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읍치도 있다. 고려읍치의 확장형으로 추정되는 전주읍치, 정방형의 읍성으로 둘러싸인 평지형의 남원 읍치, 산줄기가 읍치 주요부까지 미치지 못하고 물줄기에 의해 차단된 운봉 읍치 등이 그 예이다. 이 세 곳을 기타 유형으로 분류한다면 전북 지역 읍치 경관 중 관아 경관의 주요 유형은 <표 4>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4. 전북 지역 읍치 경관 중 관아 경관의 주요 유형(18세기 후반)

구분	특징	사례
유형 I	아사 중심형	고산, 만경, 옥구, 용안, 진안, 홍덕
유형 II	객사 중심형	무장, 여산, 익산, 순창, 여산, 장수
유형 III	객사-아사 포괄형	고부, 금구, 김제, 무주, 용담, 임피, 정읍, 태인, 함열
유형 IV	객사-아사 분기형	임실
기타	평지형 읍치	전주, 남원, 운봉

* 자료: 『1872년 지방지도』, 『해동지도』(古大4709-41), 『광여도』(古大4790-58), 『지승』(奎15423, 이상 서울대학교 규장각)

다음으로, 제향 경관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전북 지역에 있어서, 사직단은 26개 고을 중 19개 고을에서 관아 기준 서쪽에 배치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약 73%). 여단은 26개 고을 중 24개 고을에서 북쪽에 배치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약 92%). 물론 『여지도서』에 기록된 이러한 방위 정보는 어쩌면 객관적인 실제 방위와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주요 시설들이 그러한 방위에 배치된 것으로 인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사직단은 관아의 서쪽, 여단은 관아의 북쪽이라는 특정한 방위 지향성이 있었다(그림 4). 이미 언급했듯이, 주요 제향처의 이 같은 특정 방위 지향성은 국가 수준에서 시행된 원칙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문묘의 경우, 좌묘우사의 원리 및 음양오행의 관념에 따라 읍치 동쪽에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읍치의 관아 시설로부터 독립된 형국(形局)에 자리하는 향교의 입지적 특성상, 기본적으로 동쪽 입지를 지향하되 실제로는 독립된 형국을 찾아 다른 방위에 배치되는 경우도 많았다. 전북 지역의 여러 읍치에서도 문묘는 기본적으로 읍치 동쪽에 배치되었지만 그 밖의 방위에도 배치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문묘가 동쪽에 배치된 경우는 26개 고을 중 8개 고을(약 31%)로 확인되는데, 서쪽과 북쪽에 배치된 고을도 각각 7개소(약 27%)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부록 2 참조). 이 외에 남쪽에 배치된 고을이 3개소(약 12%), 동남쪽에 배치된 고을이 1개소(전주)였다. 끝으로 성황단은 고을에 따라 성황사, 성황당 등으로 기입되고 있는데, 어떤 방위 지향성을 특정하기 어렵다.

일부 고지도에서는 4대 제향처의 구체적인 모습도 어느 정도 보여준다. 주요 제향처에는 홍살문이 설치되어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를 알려주고 있는데, 만경현과 임피현 고지도의 경우 사직단의 네 방위에 1개씩 모두 4개의 홍살문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익산군과 여단부 고지도에서는 여단에 1개소의 홍살문을 표시하고 있는데, 임피현과 진안현 고지도에서는 4각형으로 된 여단 제단에 총 4개소의 홍살문이 4방위에 설치되었음을 표시하고 있다. 대다수 고을의 고지도에서 문묘가 있는 향교 입구에도 1개소의 홍살문을 그려내고 있다. 이 외에 여러 고지도에서 사직단, 여단, 성황단에 건물을 1채 묘사하고 있는데, 작은 집 모양을 동일하게 그려넣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스케일이다. 다만 익산군 고지도에서는 여단과 성황단에 건물 없이 제단만 도드라지게 묘사하고 있다.

부기할 것은 남원 읍치의 제향처이다. 남원 읍치의 경우에는 4대 제향처 외에 관왕묘와 지리산 신사, 그리고 충렬단이 있었다. 관왕묘는 중국 삼국시대의

명장으로 알려진 관우를 배향한 전각이다. 우리나라에서 관우를 배향하기 시작한 것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들어와 주둔한 것이 계기였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관우 전각은 남원 관왕묘 외에 여수 관왕묘, 전주 완산구의 관성묘, 서울 중구의 성제묘, 서울 종로구 동묘(동관왕묘), 안동 관왕묘, 성주 관왕묘, 부산 동래구 관왕묘 등이 있다. 지리산신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남원부 소아리(小兒里, 현 구례군 광의면 온당리)에 위치한 곳으로, 조선시대 지리산신에게 국가 제사를 지냈던 곳으로 일명 남악사(南嶽祠)라고도 하였다.¹⁰⁾ 충렬단은 정유재란(1597) 때 남원성 전투에서 전사 또는 자결한 민관군을 위한 제단이다.

3) 소결: 전북 지역 읍치경관의 전형성과 변이성

전북 지역 읍치 경관의 지역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고을별 읍치 경관의 특징을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한편으로는 타지역 읍치 경관과 비교하는 관점이 요구될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경상도 읍치 경관의 특징’에 관한 세 편의 연구(김덕현 외, 2004; 이기봉, 홍금수, 2007; 최원석, 2007)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도 단위 이상의 지역 규모에서 읍치 경관에 접근한 연구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위 세 편의 주요 성과와 비교하는 시론 수준에서, 전북 지역 읍치 경관의 특징을 크게 입지 측면, 주요 경관 요소 측면, 그리고 주요 경관 요소의 공간 배치 측면에서 정리하기로 한다.

첫째, 입지 면에서 전북 지역 읍치들은 동심원상으로 배열된 산줄기 체계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미시적으로는 배산 임수(背山臨水)의 입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산줄기의 주요 맥세(脈勢)가 객사와 동헌 등의 관아 시설 및 향교 터에 닿도록 읍치 입지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입지적 특징은 진안, 장수 등의 산간지대 읍치들뿐 아니라 김제, 옥구와 같은 평야지대 읍치들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며, 조선후기 지방지도(1872)는 그러한 입지 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경상도 지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가령 읍치의 주요 시설이 산줄기(구룡 포함)의 주요 맥세와 연결된 사례가 약 69%에 이른다는 연구가 있고(이기봉, 홍금수, 2007, 323), 특히 조선 중기 이후에는 풍수적 요인의 영향으로 산기슭과 배산평지(背山平地)로의 입지 지

10) 지리산신사는 남원부의 남쪽 64리 되는 소아리(小兒里)에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 『전라도 남원도호부』). 현재 옛 터인 남악사지(南嶽祠址)(구례군 향토문화유산 제32호)가 전한다.

향성이 두드러진다는 주장도 있다(최원석, 2007, 541).

다만 읍치 입지가 산줄기의 주요 맥세와 닿아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풍수적 입지와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풍수적 주산(主山)이 아닌 진산(鎭山) 중심의 신앙적 관념은 고려시대 이전부터 있었고, 전술한 여러 관찬 자료들에 기록된 조선 읍치의 입지 및 이설 배경을 확인하더라도 풍수적 의미에서 산줄기를 언급하기 보다는 지세 및 지형의 이해(利害)와 편부 및 외침에 대비할 수 있는 방어상의 효율성 차원에서 산줄기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주나 남원 읍치와 같이 산줄기의 주요 맥세와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사례 역시 확인되는데, 이들 평지형 읍치는 고려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큰 고을로 발달한 도회지라는 공통점이 있다.

둘째, 전술한 산줄기를 제외하면 전북 지역 읍치 경관의 주요 요소는 관아 경관과 제향 경관으로 나뉠 수 있는데, 전자를 이루는 주요 요소는 객사, 아사, 향청(향사당), 훈련청이었고 후자의 주요 요소는 사직단, 문묘, 여단, 성황단이였다. 이러한 전북 지역 읍치 경관의 주요 요소는 경상도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의 읍치 설치가 기본적으로 조정에서 직접 관장한 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읍치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각 도의 관찰사가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도형(圖形)을 갖추어 조정에 보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진된 국가적 사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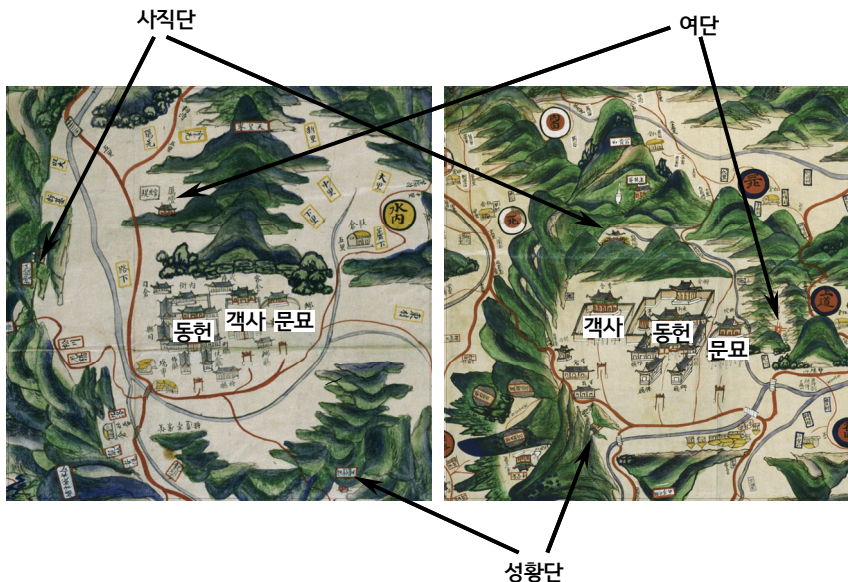
셋째, 읍치의 설치가 국가적 사업이었다고 해서 주요 경관 요소의 공간 배치까지 획일적으로 전개되었다고 보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가령 읍치 경관의 중심부를 어떤 시설이 점유하였는가 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유형이 확인되었다. 객사가 중심성을 갖는 읍치 사례가 있었지만, 동헌(아사)이 중심성을 갖는 읍치 사례도 있었고, 객사와 동헌이 중심성을 각자 나누어 갖거나 포괄적으로 공유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4대 제향 공간의 경우 사직단과 여단은 각각 서쪽과 북쪽이라는 특정 방위 지향성을 강하게 보였는데, 문묘와 성황단에 있어서는 특정 방위 지향성을 단언하기 어려웠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요 경관 요소의 공간 배치와 건축물의 구체적 형태까지 묘사한 진안현의 읍치 경관은 전북 지역 읍치 경관의 원형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다만 읍치 경관의 원형 및 주요 유형과 관련해서는 타지역에 대한 기왕의 연구가 아직 없으므로 지역적 비교의 방법으로 전북 지역 읍치 경관의 특징에 접근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5. 맺음말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전북 지역의 읍치 경관은 국가 차원의 경관 조성 원리에 따른 일반성을 반영하면서도 고을에 따라 차이와 변이를 동시에 보여준다. 이 부분에서 언급하기 적절한 사례가 장수현과 진안현, 두 고을일 것이다.

고지도에 묘사된 두 고을은 읍치를 둘러싼 산줄기와 물줄기, 읍치 안팎을 연결하는 도로망 등 입지 환경 측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준다(그림 8). 하지만 두 고지도의 지도상 방위는 서로 다르다. 장수 고지도의 위쪽은 북쪽이고 진안 고지도의 위쪽은 서쪽이다. 다시 말해 두 읍치의 입지와 읍치 경관은 절대 방위가 아니라 주산을 기준으로(주산을 등지고) 설정 및 조성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단과 여단만큼은 주산을 기준으로 배치되지 않고 특정한 절대 방위(국가 차원의 일반성)를 지향하며 위치하고 있다. 반면에 문묘는 주요 관아 시설과 마찬가지로 주산을 기준으로 좌향을 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전북 지역의 읍치 경관은 국가 차원의 원리 내지 원칙을 반영하면서도 다른 편으로는 고을이 처한 국지적 환경 조건에 따른 변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자료: 《1782년 지방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그림 8. 읍치 경관의 유사성과 상이성 (왼쪽: 장수, 오른쪽: 진안)

전북 지역에 분포했던 조선 후기의 많은 읍치들에서 우리는 주요 경관 요소들의 현 위치와 잔존 경관을 확인할 수 있다. 옛 고부 읍치는 오늘날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일대에 위치하였고 동헌과 객사는 현 고부초등학교 부근에 있었다. 고창 읍치는 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에 있었고 현 고창읍성 내에 옛 읍치 경관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김제 읍치는 김제시 교동, 서암동, 요촌동에 걸쳐 있었고, 성산 동남쪽의 교동 9번지에는 동헌과 내아가 남아 있다.

남원 읍치는 남원읍성이 일부 구간이 남아 있고 일제강점기 지형도를 보면 정사각형의 성곽터 전 구간과 읍성 안의 주요 간선도로망을 확인할 수 있다. 만경 읍치는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에 있었고 옛 만경 객사는 현재의 만경여자중학교 터에, 만경 동헌은 현 만경읍사무소 자리에 있었다. 무장 읍치는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에 있었고 객사와 동헌을 비롯한 옛 읍치 경관과 읍성이 복원 중에 있다. 이 외에도 순창 객사, 여산 동헌, 용안 동헌, 태인 동헌, 흥덕 객사 등의 옛 읍치 경관 일부가 전북 지역 곳곳에 남아 있고, 최근 전주시는 옛 전주 읍치에 펼쳐져 있던 전라 감영을 대대적으로 복원하였다.

이러한 읍치 경관 요소들은 오늘날 전북 지역이 가진 중요한 헤리티지의 하나이다. 조선의 읍치 경관은 단순히 문화유산일 뿐 아니라 우리의 과거 삶과 역사 이야기를 품은 스토리텔링의 원천이자 경제적 자산이기도 하다. 다행히도 옛 지리지와 고지도가 전하고 있고 과거의 읍치 경관의 원형과 주요 유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당대 사람들이 내면화한 읍치 경관의 이미지 안으로도 들어가 볼 수 있다. 조선 후기의 읍치 경관을 이해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읍치 경관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과 실증에 입각한 복원도 중요하지만, 당대 사람들의 삶의 세계와 지배적 관념과 그들의 공간 인지와 같은 심상적 차원 또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논문접수일: 2022. 05. 20. / 심사개시일: 2022. 07. 19. / 게재확정일: 2022. 08. 01.

참고문헌

<원전자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여지도서』

『신증동국여지승람』

『해동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古大4709-41.

『광여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古4790-58.

『지승』,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15423.

『1872년 지방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유네스코,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 <https://whc.unesco.org/en/hul/>

유럽연합, 「유럽경관협약」, <https://www.coe.int/en/web/landscape/>

일제강점기 지적원도, 국가기록원.

<단행본>

전중환, 2005, 『인문지리학의 시선』, 논형.

UNESCO, 2019, 『The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Historic Urban Landscape』.

<논문>

고석규, 2001, 「나주의 근대도시 발달과 공간의 이중성」, 『광주학생독립운동과 나주』, 박찬승 외 공저, 경인문화사, 133-39-55.

권선정, 2019, 「조선후기 부평부 읍치의 풍수적 공간구성」, 『기전문화연구』 40권 2호, 33-50쪽.

김기덕, 2004, 「조선시대 지방 읍치의 조영규범에 관한 연구-조선후기 사료에 나타난 충청도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0권 5호, 107-114쪽.

김기혁, 김성희, 2002, 「조선-일제강점기 동래읍성 경관 변화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7권 4호, 317-336쪽.

김덕현, 이한방, 최원석, 2004, 「경상도 읍치 경관 연구 서설-읍치 경관 조사 연

- 구를 위한 방법적 탐구」, 『문화역사지리』 16권 1호, 19-28쪽.
- 노희방, 1980, 「여지도서에 게재된 읍지도에 관한 연구」, 『지리학과지리교육』 10권, 1-17쪽.
- 도도로키히로시, 2005, 「조선시대 읍치와 관도의 연결 유형에 따른 교통로의 상정성-경상도의 사례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권 3호, 351-366쪽.
- 백소훈, 2017, 「지방관아 건축 ‘동헌(東軒)’ 명칭의 유래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3권 7호, 79-89쪽.
- 변광석, 2014, 「조선후기 동래 읍치의 공간」, 『지역과 역사』 34권, 135-165쪽.
- 예명해, 이재환, 2002, 「조선시대 읍치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7권 2호, 25-42쪽.
- 이규대, 2003, 「조선전기 읍치 성황제와 주도 세력-영동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17권, 117-139쪽.
- 이기봉, 2008, 「낙안읍성의 입지와 구조 그리고 경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권 1호, 68-83쪽.
- 이기봉, 홍금수, 2007, 「조선시대 경상도 읍치 입지의 다양성과 전형성-고려말 이후 입지 경향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권 3호, 321-340쪽.
- 이해준, 2015, 「조선후기 관아 기록 자료의 정리와 활용: 충청도 홍산현 관아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8권 1호, 75-115쪽.
- 전종한, 2004, 「내포지역 읍성 원형과 읍치 경관의 근대적 변형-읍성취락의 사회공간적 재편과 근대화-」, 『대한지리학회지』 39권 2호, 321-343쪽.
- 전종한, 2008, 「조선후기 군현지도에 재현된 공간 인식과 공간의식」, 『문화역사지리』 20권 2호, 112-126쪽.
- 전종한, 2013, 「세계유산의 관점에서 본 국가 유산의 가치 평가와 범주화 연구: 문화재청 지정 국가 ‘명승’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8권 6호, 929-943쪽.
- 전종한, 2015, 「조선후기 읍성 취락의 경관 요소와 경관 구성: 태안읍성, 서산읍성, 해미읍성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권 2호, 319-341쪽.
- 전종한, 2019, 「조선후기 부평도호부 읍치경관의 복원」, 『기전문화연구』 40권 2호, 71-96쪽.
- 전종한, 2020a, 「조선후기 전주부 읍치 경관의 일반성과 고유성-상징적 경관과 장소로 ‘도읍’을 담아낸 읍치-」, 『기전문화연구』 41권 1호, 63-93쪽.
- 전종한, 2020b, 「조선후기 한반도 읍치 경관의 지리적 함의와 세계유산 가치」,

- 『대한지리학회지』 55권 5호, 485-500쪽.
- 정요근, 2011, 「여말선초 군현 간 합병·통합과 신읍치의 입지 경향」, 『역사와 현실』 80권, 152-206쪽.
- 정치영, 2011, 「조선시대 지리지에 수록된 진산의 특성」, 『문화역사지리』 23권 1호, 78-90쪽.
- 조정규, 2019, 「근대이행기 부평도호부 읍치의 토지이용과 소유의 변화」, 『기전문화연구』 40권 2호, 51-70쪽.
- 조정규, 2020, 「일제강점기 전주 읍치의 토지이용과 도시 공간 변화」, 『기전문화연구』 41권 1호, 3-24쪽.
- 최원석, 2007, 「조선시대 지방도시의 풍수적 입지 분석과 경관 유형-경상도 71개 읍치를 대상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2권 4호, 540-559쪽.
- 최재현, 이해은, 2012,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성곽 유산의 활용: 중국 평야오성과 원상도(Xanadu) 유허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권 3호, 1-11쪽.
- 최진성, 2019, 「근대이행기 부평도호부 읍치의 도로망 특성과 변천」, 『기전문화연구』 40권 2호, 3-31쪽.
- 최진성, 2020, 「근대이행기 전주 읍치의 종교적 장소성 변화-읍성의 해체와 종교 경관을 중심으로」, 『기전문화연구』 41권 1호, 25-44쪽.
- 한재수, 2011, 「고지도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영월 도호부 도시 공간 구조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3권 3호, 9-18쪽.
- Bassa, L., and F. Kiss, 2009, 「Preserving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Shared Heritage-Common Responsibility, Conference Paper」.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36862018>

부록 1. 전북 지역 읍치의 원형: 4대 관아 시설 및 제향처(18세기 후반)

고을	주요 관아 시설	제향의 장소들	비고
1. 고부	객사, 아사, 향사당, 군관청, 인리청, 연무청	사직단(서), 여단(북), 성황사(북), 단(성황사 남측)	1765년(영조 41) 읍치 이설(당초 두승산 북사면)
2. 고산	객관, 아사, 향사당, 훈련청	사직단(서), 문묘, 성황사(북), 여단(서)	
3. 고창	객관, 아사, 향사당, 훈련청	사직단(남), 문묘, 성황사(성내), 여단(북)	읍성
4. 금구	객관, 아사, 향사당, 훈련청	사단(서), 문묘, 성황사(동), 여단(북)	
5. 김제	객사, 아사, 향사당, 훈련청, 군관청, 군사, 질청, 서청, 형방청, 관청, 통인청, 사령청	사직단(남), 여단(북), 성황사(동)	
6. 남원	객관, 아사, 향사당, 숙오청, 아병청	사직단(서), 문묘, 성황단(서), 여단(북), 관왕묘(서), 지리산신사(남), 충렬단(성내 북)	
7. 만경	객사(6칸), 동헌(5칸), 향사당(5칸), 장청(7칸), 질청(5칸), 현사(3칸), 형방청(4칸), 관청(3칸), 무사청(4칸), 훈련청(3칸)	성황단(두산 우슬령), 사직단(북면 봉회리 뒤), 여제단(북면 송전리 뒤), 문묘(성내)	읍성
8. 무장	객관, 아사, 향사당, 훈련청	사직단(서), 문묘, 성황사(서), 여단(북)	읍성
9. 무주	객관, 아사, 향사당, 훈련청	사직단(서), 문묘, 성황사(남), 여단(북)	
10. 부안	객관, 아사, 향사당, 훈련청	사직단(서), 문묘, 성황사(북), 여단(동)	읍성
11. 순창	객관, 아사, 향사당, 훈련청	사직단(서), 문묘, 성황사(객관서측), 여단(북)	
12. 여산	객관, 아사, 향사당, 교련청, 별포청	사직단(남), 여단(북), 성황단(북)	
13. 옥구	객관, 아사, 향사당, 훈련청	사직단(서), 문묘, 성황사(북), 여단(북)	읍성
14. 용담	객관, 아사, 향사당	사직단(서), 문묘, 성황사(북), 여단(북)	
15. 용안	객관, 아사, 향사당, 훈련청	사직단(서), 문묘, 성황사(북), 여단(북)	읍성
16. 운봉	객관, 아사, 향사당, 훈련청	사직단(서), 문묘, 성황사(동), 여단(북)	
17. 익산	객사, 아사	문묘(동), 사직단(서), 여단(북), 성황사(북)	

고을	주요 관아 시설	제향의 장소들	비고
18. 임실	객관, 아사, 향사당, 훈련청	사직단(북), 문묘, 성황사(남), 여단(북)	
19. 임피	객사, 치경현, 평이당, 자치현, 군관청	사직단(서), 문묘, 여단(북), 성황사(북)	읍성
20. 장수	객관, 아사, 향사당, 훈련청	사직단(서), 문묘, 성황사(남), 여단(북)	
21. 전주	·선화당(관찰사 근무처), 내아, 관풍각, 응청당, 연신당, 포정루, 비장청. ·풍패관(객사), 현도관[도사(都事) 근무처]. ·풍락헌(판관 근무처), 내아, 의사정, 향사당, 군관청, 질청, 교방, 간검당, 제남정, 호경루, 장대 등	사직단(서), 성황당(동), 여단(북), 문묘(남)	읍성
22. 정읍	객사, 아사, 동헌, 향서당(鄕序堂), 군관청, 질청, 사령청	사직단(서), 문묘(동), 성황단(북), 여단(북)	
23. 진안	객관, 아사, 향사당, 훈련청	사직단(서), 문묘, 성황사(남), 여단(북)	
24. 태인	객관, 아사, 향사당, 훈련청	사직단(서), 문묘, 성황사(서), 여단(북)	
25. 함열	객관, 아사, 류사당, 훈련청	사직단(남), 문묘, 성황사(서), 여단(북)	용산고성(동5리)
26. 홍덕	객관, 아사, 향사당	사직단(서), 문묘, 성황사(문묘남측), 여단(북)	

* 자료: 《여지도서》(1759-1765)

부록 2. 전북 지역 읍치의 경관 요소별 공간 배치

고을	기본 배치	제향의 장소들 (관아 기준 방위)	기타	비고
1. 고부	남향의 객사 중심형 동측에 동헌 북서측에 향교 남서측에 향청	사직당: 서쪽 여단: 북쪽 성황당: 북쪽 문묘: 서쪽	연정(蓮亭)	
2. 고산	남향의 동헌 중심형 서남측에 객사 동측에 향교 서측에 향청	사직단: 서쪽 여단: 서쪽 성황당: 북쪽 문묘: 서쪽	세심정(洗心亭)	향교는 독자 국면
3. 고창	동향의 동헌 중심형 남측에 객사 북측(읍성 밖)에 향교 북측에 향청	사직단: 서쪽(읍성 밖) 여단: 북쪽(읍성 밖) 성황사: 남동쪽(읍성 내) 문묘: 북쪽(읍성 밖)	읍성(동문, 북문)	향교는 독자 국면 산성형 읍성
4. 금구	서향의 객사 중심형 북동측에 동헌 남서측에 향교 남서측에 향청	사직단: 북쪽 여단: 북동쪽 성황단: 동쪽 문묘: 남쪽	연당(蓮塘) 송성(松城)	
5. 김제	남향의 동헌 중심형 서측에 향교 동측에 객사 남서측에 향청(향사당)	사직단: 서남쪽 여단: 북쪽 성황사: 북동쪽 문묘: 서쪽	만화루(萬化樓)	
6. 남원	성내 교차로(장시) 중심형 1사분면: 향청 2사분면: 객사 3사분면: 동헌 4사분면: 절청, 장청 등 북측(읍성 밖)에 향교	사직단: 서쪽 여단: 북쪽 성황단: 서쪽 문묘: 북쪽(읍성 밖) 관왕묘(關王廟): 서쪽(읍성 밖)	읍성(4대문).	향교는 독자 국면 정방형 읍성
7. 만경	남향의 동헌 중심형 동측에 향교 서남측에 객사 서측에 향청	사직단: 서쪽 여단: 북쪽 성황단: 북쪽(읍성 내) 문묘: 동쪽	읍성(남문)	
8. 무장	남향의 객사 중심형 동(읍성 밖)측에 향교 서측에 동헌 동북측에 향청	사직단: 북쪽 여단: 북동쪽 성황사: 북동쪽(읍성 내) 문묘: 동쪽(읍성 밖)	읍성(남문, 동문)	향교는 독자 국면 사두봉(풍수 ?)
9. 무주	남향의 객사 중심형 서측에 동헌 동측에 향교 동남측에 향청	사직단: 서쪽 여단: 북쪽 성황단: ? 문묘: 동쪽		
10. 부안	자료 없음			

고을	기본 배치	제향의 장소들 (관아 기준 방위)	기타	비고
11. 순창	남향의 객사 중심형 남서측에 동헌 남측에 향교 남동측에 향사당(향청)	사직단: 서쪽 여단: 북동쪽 성황사: 남서쪽 문묘: 남쪽		향교는 독자 국면(경천 건너)
12. 여산	남향의 객사 중심형 서측에 동헌 동측에 향교 남동쪽에 향사당	사직단: 동쪽 여단: 서쪽 연신당(延神堂): 북서쪽 문묘: 동쪽		향교는 독자 국면
13. 옥구	남향의 동헌 중심형 서측에 향교 남서측에 객사 남측에 향청	사직단: 북서쪽 여단: 북쪽 성황단: 북쪽 문묘: 서쪽		
14. 용담	남향의 동헌 중심형 북서측에 객사 북측에 향교 서측에 향청	사직단: 서남쪽 여단: 서북쪽 성황사: 북쪽 문묘: 북쪽		
15. 용안	남향의 동헌 중심형 남측에 객사 동측에 향교 향청?	사직단: 서쪽 여단: 북동쪽 성황단: 북쪽 연신당: 북쪽 문묘: 동쪽		향교는 독자 국면
16. 운봉	남향의 객사 중심형 남측에 동헌 남측에 향교 남측에 향청	사직단: 서쪽 여단: 북쪽 성황단: 동쪽 문묘: 남쪽		향교는 독자 국면
17. 익산	남향의 동헌 중심형 북측에 객사 북동측에 향교 남측에 사정(향사당)	사직단: 북서쪽 여단: 북쪽 성황단: 북쪽 문묘: 북쪽		
18. 임실	남향의 객사 중심형 서측에 동헌 동측에 향교 향청?	사직단: 북서쪽 여단: 북서쪽 성황단: 동남쪽 문묘: 동쪽		
19. 임피	남향의 동헌 중심형 동남측에 객사 서측에 향교 동남측에 향사당	사직단: 서남쪽 여단: 북쪽 성황단: 북쪽 문묘: 서쪽	읍성(남문)	
20. 장수	남향의 객사 중심형 서측에 동헌 동측에 향교 동남측에 향청	사직단: 서쪽 여단: 북쪽 성황단: 남동쪽 문묘: 동쪽		

고을	기본 배치	제향의 장소들 (관아 기준 방위)	기타	비고
21. 전주	성내 교차로 중심형 1사분면: 향청 2사분면: 객사 3사분면: 동헌 4사분면: 절청, 조경묘 등 동남측(읍성 밖)에 향교	사직단: 서쪽 여단: 북동쪽 성황사: 동남쪽 문묘: 동남쪽	읍성(4대문)	향교는 독자 국면
22. 정읍	남서향의 동헌 중심형 남서측에 객사 북동측에 향교 향청?	사직단: 남서쪽 여단: ? 성황사: 북서쪽 문묘: 북쪽		
23. 진안	동향의 동헌 중심형 남측에 객사 북측에 향교 동측에 향청	사직단: 서쪽 여단: 북쪽 성황단: 동쪽 문묘: 북쪽		
24. 태인	남향의 동헌 중심형 동측에 객사 서측에 향교 북측에 사정(향청)	사직단: 북서쪽 여단: 북동쪽 성황당: 북쪽 문묘: 서쪽		향교는 독자 국면
25. 함열	동남향의 객사 중심형 남측에 동헌 북측에 향교 동측에 향청	사직단: 남쪽 성황당: 서쪽 여단: 북쪽 문묘: 북쪽		
26. 홍덕	남향의 동헌 중심형 서측에 객사 북서측에 문묘(향교) 서측에 향청	사직단: 북서쪽 여단: 북쪽 성황단: 북쪽 문묘: 서쪽		향교는 독자 국면

* 자료: 《1872년 지방지도》

<Abstract>

The Prototype and Major Subtypes of *Eupchi* Landscapes in Jeonbuk Reg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Jeon, Jong-han*

There were about 330 *eupchi*(town seats)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26 of them were distributed in present-day Jeonbuk region. During the five hundred years of the Joseon Dynasty, each *eupchi* was filled with various landscapes and places that implied the human-nature relationship, society and culture, and dominant ideas of the time, including facilities for government officials and ancestral spaces, and the *eupchi* landscapes were born. *Eupchi* landscape is a traditional urban landscap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 valuable historical urban landscape from today's point of view.

The *Jinan-hyeon* case makes it possible to estimate the architectural style and spatial arrangement of major government facilities, as well as the overall shape of the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 On the other hand, in this study, in order to classify the main types of *eupchi* landscap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ime rather than the perspective of the present, the mountain ranges and watercourses depicted on the local map in 1872, and the spatial arrangement of major landscape elements were analyzed. This is because the old map reflects the spatial perception of the people at the time of the *eupchi* landscape.

Based on this, the main types of *eupchi* landscapes in the Jeonbuk region wer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ie. Asa-centered type, Gaeksa-centered type, Gaeksa-Asa inclusive type, Gaesa-Asa branching type, and others. However, in order to more wholly trace the original landscape of townships in Jeollabuk-do, detailed studies on 26 *eupchi* landscapes and comparative studies with *eupchi* landscape in other regions should be followed.

Key Words : Eupchi, Jeonbuk Region, Eupchi Landscape, Traditional Urban Landscape, Historic Urban Landscape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of Education, Gyeon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